

원격수업으로 학교폭력 줄었지만 사이버폭력 걱정

광주시교육청 분석, 심의 건수 72%·가담학생 수 71% 감소 학폭가담 중학생 다수...SNS·사이버로 이동 특별 관리 필요

코로나19 확산으로 광주 지역 일선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뤄지면서 학교 폭력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학교에서의 발생빈도가 여전히 높고 비대면 수업 확산으로 온라인상에서 폭력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이 10일 광주 일선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총 367건으로 2019년 심의 건수 1332건과 비교해 72% 감소했다. 지난해 학교폭력에 가담 학생 수도 488명으로 2019년 가담 학생 수 1700명과 비교해 71% 줄었다. 2018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1305건)와 가담 학

생 수(1720건)와 비교해서도 지난해 학교 폭력은 대폭 줄 것이다. 이처럼 학교 폭력이 감소한 이유는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폭행, 폭언 등 신체적 접촉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결과, 가해 학생 선도 및 교육 조치 현황(중복 조치 가능)을 보면 총 861건 중 서면 사과가 238건(27.6%)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61건(18.6%), 학교 봉사 136건(15.7%), 출석

정지 60건(6.9%), 사회봉사 33건(3.8%) 등이었다. 가해 학생에 대한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인 학급체제와 전학은 각 6건(0.6%)과 10건(1.1%)이었다. 학교폭력 심의 최고 조치인 퇴학 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학급별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가담 학생 수는 중학교(220건·266명)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104건·154명)가 뒤를 이었으며 초등학교(39건·65명)는 가장 적었다. 이에 따라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관리에 역점을 뒀아 할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 확산으로 다수 학생이 등교하지 않음에 따라 학교폭력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비대면 수업 확산으로 온라인상에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를 끈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의 부분 등교가 이뤄지기 때문에 현실 공간에서 학교폭력 우려는 항상 있다"며 "중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학급에서 학교폭력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대, 지역아동센터 '모두 건강해 저당!' 교육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광주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최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저당 교육'을 실시했다. '당 줄여 모두 건강해 저당!'을 주제로 펼쳐진 이번 교육은 ▲당이란 무엇인지 ▲당 섭취 시, 우리 몸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당 섭취를 줄이는 방법 ▲대체 식품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광주대 제공>

전남 최초 민관협업형 공립 대안학교 '송강고' 개교

담양 봉산면 양지마을...정원 45명

전남 최초 민관협업형 공립 대안학교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1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담양군 봉산면 양지마을에 현지에서 송강고등학교 개교식을 갖고 민관협업형 공립 대안학교의 출발을 알렸다. <사진> 담양군 봉산면 양지리 옛 봉산초 양지분교 부지에 세워진 송강고는 학년당 1학급(15명) 정원 45명 규모로 운영된다. 전남과 서울, 경기, 광주 등에서 입학생과 전입생을 받아 20여 명의 학생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민관협업형 대안학교인 송강고는 (주)심정뜰짜 나라(대표 강재구)와 손을 잡고 생애창업, 공방형 미래교육을 지향하며 산학겸임 교사와 지역전문가들이 19명의 교직원과 협업해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국어와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등 보통교과와 공방형 미래 직업교육, 삶의 여행, 상상과



창업 등 대안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대안교육을 받는다. 장석용 전남도교육감은 개교식이 끝난 뒤 관계자들과 대화의 자리를 갖고 송강고의 정체성, 미래, 대안교육 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경찰대 사상 첫 편입학 시행 50명 선발

'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 발표...일반대학생·재직경찰관 전형

경찰대가 오는 2023년 첫 시행되는 편입학 제도를 통해 50명의 인재를 남녀 구분 없이 선발하기로 했다. 경찰대가 최근 발표한 '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에 따르면 편입학 모집은 일반대학생 전형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각각 25명씩 총 50명을 선발한다. 두 전형 모두 남녀 구분 없이 통합 모집한다. 일반대학생 전형의 지원 자격은 편입 연도 기준 17세 이상 44세 미만으로, 전공 구분 없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대학 포함)에서 63학점 이상 또는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전적 대학 성적 평균 100점 만점 80점 이상인 경우 제한 없이 필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재직경찰관 전형은 일반대학생 전형의 지원 자격에 더해 근무경력, 치안성과평가 등이 반영된다. 편입학 전년도 말 기준 3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토익 기준 625점 이상의 영어 성적도 보유해야 한다. 한편 합격한 편입생들은 2023년 경찰대 3학년으로 일괄 편입된다. 2021학년도에 입학한 경찰대 41기와 함께 수업을 받고, 41기로 졸업 후 경위로 임용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동강대 창업보육센터, 19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

스타트업 기업 정착·청년창업 활성화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창업보육(BI)센터가 스타트업 기업의 조기 정착과 청년 창업 활성화 등에 기여해 19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동강대 BI센터(센터장 박 경우)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260여 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국내 유일의 19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동강대 BI센터는 지난 1999년 12월 개소 이후 창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조기 정착하고 창업가 육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동강대 BI센터는 2014년부터 'BI 보육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며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광주대, 남부대, 동신대, 호남대 등 4개 대학의 BI센터 입주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여기에 지난해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1·2차 사업에 모두 선정돼 'COVID-19' 시대 기업들의 비대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전국 BI센터 최초 투자정보실도 개소했으며, 2015년부터 학교 창업동아리를 지원하며 창의적인 창업가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이밖에 광주 북구와 고용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광주테크노파크의 '세대별 맞춤형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 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다. 박경우 센터장은 "1999년부터 창업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노후를 쌓으며 스타트업 기업들의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센터 입주기업뿐 아니라 창업동아리지원 등을 통해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일자리센터 '면접특강' 호평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채용시즌에 적극적인 면접 지원 프로그램인 '공기업·사기업 면접심화 특강'을 진행해 참여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대학일자리센터는 공기업 및 사기업의 채용 시기에 맞춰 면접전형이 진행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최신 채용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면접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특강을 마련했다. 지난 4월 30일에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5월 4일에는 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기업의 평가 방식과 평가요소, 블라인드 채용과 비대면 면접, 직무역량 검증에 대한 면접기법 등 취업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공유됐다. 이외에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그룹형 및 1:1면접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면접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윤오남 대학일자리센터장은 "면접은 실전능력강화가 필수인만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취업을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

손해보험협회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대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SGI서울보증, AIG,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KOREAN, BNP PARIBAS CARDIF, CHUBB, Carrot